

## 이찬원 "부모님이 가수 꿈 반대...학창시절 아나운서가 꿈"

등록 2024.10.11 05:46:00 | 수정 2024.10.11 07:16:15



[서울=뉴시스] KBS 2TV 예능물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11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사진=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제공)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혜원 인턴 기자 = 가수 이찬원이 캐스터로 변신한다.

11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이찬원의 남다른 야구 사랑이 공개된다. 연예계 소문난 야구광답게 이찬원이 쉬는 날 집에서 야구 중계를 보며 휴식을 만끽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찬원이 학창 시절 트로트 가수와 함께 꿰던 또 다른 꿈도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한다.

이날 공개되는 VCR 속 이찬원은 평소와 달리 한껏 흥분한 채 TV를 시청했다. TV 화면을 뚫어져라 보는 것은 물론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는 이찬원의 모습에, 그가 뭘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높아졌다. 알고 보니 요리만큼이나 야구를 사랑하는 이찬원이 집에서 프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던 것.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실제 아나운서가 왔나 싶을 정도로 생생한 이찬원의 방구석 중계였다.

이찬원은 매의 눈으로 재빠르게 경기를 분석한 뒤 편안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방구석 중계를 이어갔다. 해박한 야구 지식도 술술 쏟아냈다. 이에 스페셜MC로 '편스토랑'을 찾은 현직 아나운서 배혜지는 "발성도 좋고 발음도 정말 좋다"라고 감탄했다. 실제 이찬원은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즉석에서 섭외를 받아 실제 야구 캐스터를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이찬원의 놀라운 중계 실력은 큰 화제를 모았다. 함께한 현직 캐스터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찬원은 "항상 저렇게 연습한다. 과거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꿨기 때문에"라고 말을 꺼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찬원은 학창 시절 트로트 가수를 꿈꿨지만, 부모님이 가수의 꿈을 반대하시기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진로를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밝힌다. 이찬원은 "대학 입시 당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다"라고 회상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이찬원은 야구 경기 상황에 따라 희노애락이 얼굴에 실시간으로 드러나 웃음을 줬다. 마침내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치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툭툭 흔들며 춤을 춰 '편스토랑'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여기에 이찬원이 야구 중계 볼 때마다 해먹는다는 최강 메뉴 레시피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easanteye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